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옌벤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 분석

한성미* · 임승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An Analysis of Elements in Yen-Ben Street That Form a Sense of Place as an Ethnic Enclave

Han, Sung-Mi* · Im, Seung-Bi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eeks those elements that form a sense of place in Yen-Ben Street, which represents a typical ethnic enclave in Seoul, to provide a basic resource in the creation of an urban landscape that can provide a positive space for cultural diversity.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lement of a physical environment that develops a sense of place was in fact the poor dwellings that cor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 of Korean Chinese. While this element has a negative cognition to outsiders, Korean Chinese feel positively toward it. Secondly, signboards were a physical element of sense of place which retains cultural identity as a means of communication inside the community. Thirdly, it was found that activities such as shopping, recre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at are found in the pursuit of daily life act as an essential element in the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even more than architectural elements. Fourthly, the appropriation of space by Korean Chinese and the isolation from the surroundings were obvious. This isolation is perceived as a negative sense of place formation to outsiders in Yen-Ben Street. Fifthly, the aspects of cultural dualism, mingling the concepts of home country, language, writing, and food have also affected the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in the area. Sixthly, transience was a prominent phenomenon of Yen-Ben Street, and is strengthened by illegal immigration. Although transience causes negative impacts such as in a lack of concern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t acts as a positive factor in the sense of place by mitigating uneasiness, and strengthening insider ties and cooperation.

Key Words: Place Identity, Place Attachment, Appropriation, Transience

Corresponding author: Sung-Mi Ha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86, E-mail: smhan@s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전형적인 소수민족집단지체류지역(ethnic enclave)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가리봉동 “엔벤티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음으로써, 국내 외국인 거주자 및 주거지역의 증가에 의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러한 다양성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도시경관 형성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소수민족집단지체류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엔벤티거리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장소성을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 나타난 쪽방촌과 열악한 공간적 환경은 외부자의 부정적 인식과 달리 거주자에게는 그들의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보였다. 둘째, 연결에서의 그것과 유사한 색채 및 한글과 한문이 혼용된 간판은 엔벤티거리에서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물리적 환경 요인으로서, 내부인인 조선족에게는 구성원들 간의 내적 소통의 수단으로 조선족 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엔벤티거리에서는 물리적 건축 환경 요소보다는 집단적 삶의 일상성을 충족시키는 구매활동, 여가 및 정보교환 활동이 장소성 형성에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넷째, 공간적 전유(appropriation)현상과 주변과의 격리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격리현상은 외부인에게 부정적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섯째, 조선족의 고향에 대한 인식, 문자 및 언어, 음식문화 등에서의 문화적 이중성(dualism) 및 혼재(mingling) 양상은 현재 엔벤티거리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엔벤티거리의 장소적 현상에 있어서 임시성(temporariness)이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임시성은 불법체류라는 조건 하에서 더욱 강화되고, 이는 주거환경에 대한 무관심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임시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내부자간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장소성 형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장소 정체성, 장소 애착, 전유, 임시성

I. 연구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급증과 함께 한국내 외국인 거주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등록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7,899명에서 2008년 2월 현재 119,112명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 이미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선 실정이다¹⁾. 이들의 출신 국가 또한 미국·프랑스·일본에서부터 아프리카 지역·필리핀·네팔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한국 내 사회·경제적 위치 역시 외교관 및 주재원 등을 비롯한 고위층에서 일용직 근로자에 이르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은 한국거주 외국인 인구의 30% 이상이 거주하면서 최근 다수의 외국인 공동체가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체류 외국인과 그에 따른 외국인 공동체의 주거지역 형성의 증가는 도시의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 발생적 주거 복합형 마을로서 전형적인 소수민족집단지체류지역(ethnic enclave)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엔벤티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 함축된 의미를 찾음으로써 도시 공간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경관 형

성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관련 연구의 동향

1. 장소상실과 Ethnic Enclave

사전적으로, 소수민족의 집단적인 주거지역으로 번역되는 Ethnic Enclave²⁾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장소성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작용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Abrahamson (1996)은 Ethnic Enclave는 이주민들에게 환경변화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대안적인 경제 구조를 부여하며, 문화적 전통 보존을 촉진함으로써 이민자의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Abrahamson, 1996; Gold, 1992; Zhou, 1992). 다른 문헌들에서도 이주에 의해서 상실감, 분리감, 그리고 무력감을 동반한 물리적, 사회적 치환(displacement)을 포함하는 외상을 입는다고 주장한다(Handlin, 1951; Kramer, 1970; Gold, 1992).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별, 오래 되고 친근한 사회-문화적 제도의 상실로, 이주민 집단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보존되고 새로운 사회와 중재되어 상호 작용하는 그들 자신의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것이다. 로버트 박(Robert Park, 1952)은 그러한 민족 공동체를 ‘고유한 문화 형태를 보존하고 삶에 대

한 개별적이고 독특한 개념을 유지하려는 분리된 사람들의 모자이크라고 설명했다.

Ethnic Enclave는 또한, 새로 정착한 사람들에게 이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킴으로써(Kramer, 1970), 그리고 다양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Lyman, 1974; Gold, 1992; Zhou, 1992)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고 조화할 기회를 부여한다(Gordon, 1964)고 연구된 바 있다.

한편, Portes와 Manning(1986)은 Ethnic Enclave를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는데, Ethnic Enclave 출현의 목적은 기업 활동으로써, 이를 뒷받침하는 조건으로 첫째, 그들이 떠나온 나라에서 습득한 사업 경험을 가진 이민자들의 상당수의 출현, 둘째, 자본의 유용성, 셋째, 노동력 자원의 유용성 등(Portes and Manning, 1986)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새로 이주한 국가(host country)와의 경제적 통합에 초점을 두며 Ethnic Enclave를 이민자들의 결합의 대안적 양식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에서는 공동체의 형성, 장소의 정체성, 애착 등, 장소 형성의 기본적 요인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 장소 정체성

Proshansky는 환경에 대한 믿음, 선호, 감정, 가치, 목적, 그리고 행태적 성향을 자아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장소 정체성이라 하였다. 또한, 장소 정체성은 '개인적 삶에 있어서의 물리적 세계(환경)에 대해 폭넓게 지각된 인지로 구성된 자아 정체성의 하부구조로 설명하기도 하였다(Proshansky et al., 1983; Proshansky, 1978). 또한, Williams 등은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을 장소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 측면과 상징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성원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Williams and Roggenbuck, 1989; Shamai, 1991; Giuliani and Feldman, 1993).

Twigger, Ross와 Uzzell(1996)은 Proshansky 등(1983)의 주장에 동의하는 반면, 장소 정체성은 단순히 '정체성의 분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모든 양상들은 합쳐진 장소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장소 정체성의 발전을 연속성(continuity)과 '뚜렷한 자아 존중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Tuan(1980)과 Relph(1976)는 장소 정체성은 인간과 장소와의 결합 혹은 연계의 차원으로 논의되었으며, 이후 '공간적 정체성(Fried, 1963)'과 '정착 정체성(Feldman, 1990)'과 같은 용어를 통해 개념화 되었다.

이주와 관련하여 Feldman(1990)은 반복적인 주거 이동을 경험하는 가구는 이전 주거와 유사한 장소로 이주하여 정주 정체성(Settlement Identity)을 유지함으로써 주거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Brown과 Perkins는 주거 형태와 이웃의 물리적 환경은 개인

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그러한 것에 작용한다(Brown and Perkins, 1992)고 주장하였고,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하는 정체성의 개념은 Relph(1976), Rowles(1983), Hummon(1989) 그리고 Rivlin(1987)에 의해 더 발전되었다.

Relph(1976)는 커뮤니티와 장소의 관계에 대해, 각 개인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소, 경관이 공동으로 지니게 된 믿음과 가치, 그리고 인간사이의 연루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커뮤니티 정체성과 관련하여, Hummon(1992)은 커뮤니티 정체성은 사회적 통합과 환경적 경험에 근거하며 삶의 경험에 대한 개인적 의미와 지역 문화의 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 결과 및 이론들은 실제 상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예증을 통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3. 장소 애착

Altman 등은 개인이 일상 속에서 연관성을 가지는 다양한 장소에는 장소를 이용하는 구성원들의 장소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Altman and Low, 1992).

다양한 민족의 이민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차이나타운(Yuan, 1963; Loo, 1991), 폴란드인 집단체류지역(Lopata, 1964), 미시간 주 디어본(Dearborn) 레바는 집단체류지역, 독일마을과 리틀 아바나(Abrahamson, 1996) 등에 대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Jonassen(1948, 1961)은 노르웨이인들이 브록클린 조션소 근처에 거주하는 이유는 배와 조션소가 그들의 항해 유산(heritage)을 상기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분위기는 바다와 친근했던 사람들이 고향을 느낄 수 있었으며(Jonassen, 1949), 노르웨이의 해안 문화 안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였던 노르웨이인들에게 지속성과 심리적 만족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Hummon은 장소에 대한 향수(nostalgia)가 이민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연속적 유사성을 보유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정 민족 거주지역과 같은 장소는 '계속되는 정체성을 위한 상징적인 구명뱃줄(Hummon, 1989)'을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정신적인 닻(Cooper Marcus, 1982)'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Rivlin(1982, 1987)은 Lubabitch 유태인 커뮤니티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들의 종교, 교육기관, 상점 등의 네트워크에 의해 경험되는 것들의 총체가 장소에 대한 애착을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Fried는 그러한 장소들의 상실은 '한 인

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계의 붕괴이며, 그러한 상실은 관계의 분열을 초래한다(1963).'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로서, 이은숙(2004)은 인간의 장소에 대한 애착의 본질을 행태적, 사회문화적, 상징적, 심리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그 개념구조를 제시한 바 있는데, 장소에 대한 애착은 인생행로의 한 형상이며,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현상이 수렴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의미를 얻게 된 개인 및 집단과 장소 사이의 상징적 관계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특정 집단의 장소성 형성에 관한 국내 연구는, 이서진(2007)이 종로구 낙원동 일대를 사례로 게이 남성들이 장소를 형성하게 된 요인과 이들의 장소 인식 현황을 통해 소수 집단에 의한 장소 형성과 경관적 특성을 분석한 바 있다.

최근, '서울시에 형성되고 있는 외국인 마을에 대한 조사'와 같은 현황 조사들이 실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도시 관광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적 특성을 근거로 한 실제 거주자 및 이용자에 의한 장소성 형성과 그에 따른 공간적 차원에서의 심층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외국인 최대 단일 거주지역으로 전형적인 자연발생적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을 형성하고 있는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 내 약 500m의 '엔벤거리'와 이를 중심으로 한 조선족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조사를 위하여 가리봉 공단 5거리 일대가 포함되었다.



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
자료: Google Earth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조사 및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의 일환인 '사실적 현장 연구(Naturalistic Field Research)'를 바탕으로, 물리적 혼적관찰, 행위관찰, 심층 인터뷰 조사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2008년 4월 5일, 27일, 5월 5일, 24일, 25일 5일 동안 오후 1시에서 7시까지 총 5회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이용 행태 및 장소의 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관찰과 사진촬영을 포함한 기록이 진행되었으며, 센서스 자료나 설문지 방식에 의한 연구들이 주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한다면, '이주자'의 관점에서 그 경험을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최근 이주연구에 있어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구술사 분석(Narrative Analysis)³⁾을 위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대상지 주민 및 방문자를 포함하는 조선족 18명, 가리봉동 주민 및 가리봉 5거리 일대의 쇼핑객을 포함하는 한국인 7명, 그리고 엔벤거리 내 중국인 3명 등 총 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족 남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 평균 30분 이상의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그 외 5분 내외의 짧은 인터뷰도 포함되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 및 이론들을 참고하였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장소로서 또 다른 Ethnic Enclave인 서래마을의 현상도 일부 비교하였다⁴⁾. 수집된 자료는 Camus의 장소 정체성 형성 요소, 즉, 물리적 환경, 인간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가지는 의미⁵⁾를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및 해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물리적 환경 요인

조선족 거주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 분석의 일환으로서 엔벤거리와 그 일대 지역을 대상으로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리적 환경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크게 주거형태, 엔벤거리 내 간판, 상업공간 유형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관찰되었고, 인터뷰 내용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공간적 특징이 함축하고 있는 장소성 형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1) 쪽방촌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선족 동포와 중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집단체류지역이 형성된 가리봉동은 1960-70년대 구로공단 근로자들이 거주하며 형성된 쪽방촌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별집이라고도 불리는 쪽방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공

장 및 기업체가 서울시 외곽으로 이주하면서 잠시 가출청소년들에 의해 점유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전체 거주 조선족 인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서울 거주 조선족 중 약 3만 여 명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1만 2000여 명이 가리봉시장 옌벤거리 일대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다.

쪽방은 1층-3층 주택에 10~3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서 방과 부엌만의 구조를 가진 평균 2평 면적의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나 평균 10~20만원 내의 저렴한 임대료는 절대 다수가 임시직에 종사하고 월 평균 수입이 80만원인 저임금 조선족 노동자들의 경제적 여건에 부합하고 있다.

“집값이 싸니까, 근거는 가리봉동에 두고, 일감을 찾아 용인 아파트 공사장, 시화공단, 의정부로 쫓아다니지요.”

또한, 이 지역은 값싼 주거비 외에도, 지하철 7호선과 1, 2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상의 편리함과 구로·가산 디지털 단지 내 영세 기계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는 이점들이 결합되면서 조선족들에게 선호되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특성상 학령기 인구는 극소수임에 따라 교육 편의시설 또한 전무하였다.

옌벤거리 일대의 이러한 주거 환경의 특성은 프랑스인 학교와 고급 빌라가 주를 이루고 있는 프랑스인 거주지 '서래마을'과는 대조적인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조선족 집단체류지역으로서의 쪽방촌은 거주자의 경제적 여건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주거형태는 옌벤거리의 정체성 및 이미지를 이루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조선족 거주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만족하며 긍정적인 것에 반해, 한국인들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간판

옌벤거리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40여개의 음식점, 유흥업소,

전화방, 여행사 등의 상점 간판은 대부분 중국어, 혹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용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서래마을과 같은 다른 외국인 거주지역과는 달리 주거 인구적인 특성, 즉,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써, 그 목적이 특별히 한국인과의 소통이나 교류를 위해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판의 디자인과 색상은 노란색과 붉은색이 주를 이루는 연길(연변)지역의 그것과 유사하였으나, 한국식 간판 형태와 글씨체도 일부 혼재하였다.

이러한 간판의 특징은 인터뷰 결과, 한국인에게 옌벤거리를 가장 이국적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나타난 반면, 조선족 거주자에게는 특별히 고향과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이 이국적 정취를 느끼는 간판이 그 지역의 외국인 거주자, 즉, 내부인에게는 한국식 형태가 혼재된 것으로 느끼게 한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 옌벤거리의 간판은 이 지역만의 독특한 시각적 특징을 부여하는 환경 요소이나, 한국인 혹은 외부인에게는 장소의 이국적 정취를 강하게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조선족 및 조선족 주민에게는 '편안하다', '편리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남으로써, 고향의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내적 소통의 수단으로서 장소의 정체성을 보유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내부자 중심의 생계형 공간

건축물은 관찰자가 보고 해석하는 함축적인 상징이라는 관찰자의 주장과, 건축물을 소통의 장치로 이용하는 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Rapoport는 주장한 바 있다(Rapoport, 1982). 옌벤거리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공간 형태는 기존 한국의 건축물을 단지 조선족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활용하고 있을 뿐,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거나 중국에서의 조선족 양식의 요소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전통적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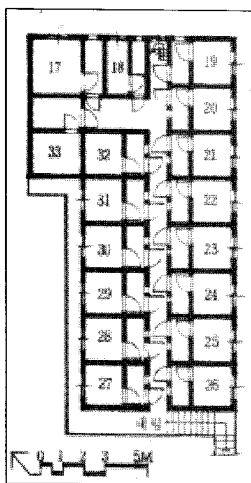


그림 2. 쪽방촌 내부 구조



그림 3. 쪽방촌 외부 모습



그림 4. 한글과 한문 혼용 간판

축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인천의 차이나타운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상업시설의 경영인과 고객이 모두 한국인이 주를 이루는 서래마을과, 경영인이 중국인이지만 고객이 한국인의 형태를 보이는 차이나타운과는 달리, 엔벤거리의 상점들은 상점 경영인과 이를 이용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모두 조선족이라는 점에서 그들 일상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생계형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엔벤거리의 각종 상업시설들은 식당, 술집, 식료품점, 의류점, 전화방, 오락실, 여행사, 직업소개소 등 조선족 거주자들의 일상적 삶에 요구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외부인 및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닌 조선족의 집단적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차이나타운과 같은 건축적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은 한국 내 조선족들의 경제적 역량의 부족함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서래마을과 같은 한국인 경영자와 한국인 구매자, 혹은 차이나타운의 경우인 중국인 경영자에서 한국인 구매자 상권과 비교할 때, 엔벤거리의 경우 조선족 경영자와 구매자 형태의 상권의 형성의 '내부자 중심의 생계형 공간'에서 내부자의 공간 이용 및 참여 정도가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터뷰에서 조선족들은 엔벤거리에서 '편안하다', '편리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여, 관찰자 혹은 외부인이 '더럽다', '냄새난다', '지저분하다', '위험해 보인다', '가기 꺼려진다'는 응답들과 비교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 내 상업시설 및 가로 등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한국인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서래마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조성된 공간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엔벤거리의 장소성은 물리적 건축 환경 요소보다 공간 내 장소의 이용형태 및 집단적 삶의 일상성과의 밀착 정도에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공간이용 형태

어떠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태는 그 장소의 정체성 및 장소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관찰조사 결과 나타난 엔벤거리에서의 주요 행태는 상업시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엔벤거리만의 독특한 공간적 행태도 발견되었다. 관찰조사와 함께 엔벤거리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 질문이 실시되었는데, 주말과 휴일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대부분의 장시간 인터뷰의 응답자는 남성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족 여성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가 많아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에 비해 인터뷰에 거부감을 나타낸 결과로 분석되었다.

1) 여가활동

주말과 휴일의 조사 시간 동안 엔벤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행태 중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특징적 행태는 길가에 앉거나 서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의 남성으로,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 그룹을 이루어 일렬로 앉아 있는 행태가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대화의 특징 주제가 있거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 가끔 주변 상점에서 술을 구입해 나눠 마시거나 상점 앞의 인형 뽑기 오락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이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저소득의 조선족들에게 마땅한 여가 공간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엔벤거리의 도로변에 설치된 인형 뽑기 등의 오락기는 조선족들이 자주 이용하는 놀이수단으로 관찰되었으나, 게임방과 같은 대규모의 오락실 또한 성업 중이며 주말 야간의 경우 많은 조선족들이 노래방, 술집 등의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오지. 근데 여기 식당하고 술집하고 전부 한국 일반 식당하고 똑같이 비싸. 이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술도 한잔씩 하고... 밤 되면 분위기 난잡하지.. 낮에 일 나갔던 여자들도 많이 오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저기 게임방에서 돈 날린 사람들도 많아."

"여기는 다른 데 보다 우리가 먹고 놀기 편해요. 중국 음식도 먹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술 마시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방에 많이 가고... 우리는 노래방에 많이 가요.. 밤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

"우리 집은 단골고객들이 자주 요구를 해서 중국가요를 많이 들었어요."



그림 5. 주요 행태 앉아서 담소하는 모습

2) 소통행위

엔벤거리에는 국제전화 통화할 수 있는 '전화방'과 함께, 거리에 전화기를 설치해 놓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조선족들은 고국의 가족·친지와 소통을 하고 있다. 인터뷰 조사 결과, 최근에는 조선족들의 휴대폰 소지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거주자의 30% 이상이 불법체류자이며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많은 조선족들은 가정에 전화를 설치하지 않고 전화방을 이용하고 있었다. 전화방은 엔벤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공간이며, 거리에서 역시 테이블에 앉아 각자 고국에 전화를 하는 독특한 공간이용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엔벤거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에게도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뷰 응답자의 상당수가 '조선족 친구를 만나러 온다', '사람을 만나러 온다'고 응답하여 '만남을 통한 정신적 커뮤니티'(Mazumdar 등, 2000)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래마을의 경우 프랑스 학교를 중심으로 자녀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프랑스인을 볼 수 있는 점과 매우 상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조선족 인터뷰 대상자는 '엔벤거리에서는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해서 좋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서래마을의 프랑스인 거주자들의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Ethnic Enclave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언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는 여기 살지는 않고... 친구 만나러 왔어요. 볼 일 보러도 오고, 중국에 전화도 하고..."

완전히 고향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어도 통하고, 글자도 통하고... 여러 가지로 편하니까. 약속을 하면 여기서 사람을 만나요."

"설에는 연휴 때 다른 지방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서울 올라와서 여기서 술자리도 벌어지고... 그믐날에는 걸어 다니기 힘들만큼 사람이 많기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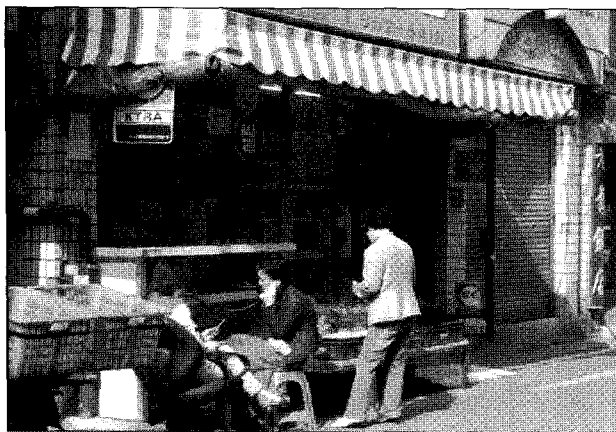


그림 6. 가로변에 설치된 국제전화용 시설

3) 구매활동

많은 조선족들이 엔벤거리에서 중국식당을 이용하거나 중국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관찰 조사 결과, 조선족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주말동안 엔벤거리 상권에서의 구매활동이 많았다. 특히, 여성 인터뷰 대상자의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물품과 중국 식재료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 및 식품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개고기, 양고기, 토끼고기, 팥탕, 향신료 '즈란' 등 한국 상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조선족 고유의 음식과 식재료로써, 엔벤거리의 상거래 활동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찰조사 기간 동안, 많은 조선족들이 우리의 '분식집'에 해당하는 '중국 소식부'를 찾으며, 식당에는 남성들이 낮 시간 동안에도 중국 및 조선족 음식뿐 아니라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국식품점에선 깬두부(견두부), 당콩 같은... 고향 엔벤에서 먹던 대부분 재료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양려우취(양꼬치)하고 코우빼이(컵술) 그런거 먹으면 고향 생각도 나고, 피곤이 풀리기도 하고..."

Abrahamson(1996)과 Rivlin(1987)은 식료품을 사는 행위는 단순히 필요한 기능적 활동이 아니라 문화, 정체성, 그리고 집단 애착들이 음식을 통해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엔벤거리에서의 토속음식 구매 및 식당 이용의 행태는 조선족 집단이 중국에서 지냈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세부 사항을 한국에서 연속시키는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 받는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집단지류 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장소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 판단된다.

3. 엔벤거리의 현상 및 의미

1) 전유성과 고립

엔벤거리와 그 일대는 거주자와 이용자의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이루어지는 강한 전유성(appropriation)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한국 내 조선족의 사회·경제적 위



그림 7. 중국 음식점과 식품

치를 들 수 있다. 일용직 단순 근로자, 종업원 등의 저소득층의 조선족은 주거환경이 낙후하지만 경제적인 가리봉동 일대에 집단적으로 정착을 하게 되고, 주변과의 소통은 약화되는 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조선족만의 공간의 전유성은 강화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단 5거리를 중심으로, 엔벤거리리는 새롭게 조성된 가산 디지털 단지와 패션 아울렛 등과 인접하고 있으나, 실제 공단 5거리 패션 아울렛 앞에서 실시한 인터뷰 조사 결과 엔벤거리리에 대해 알고 있는 한국인 인터뷰 조사 대상자는 없었다.

가리봉동의 한국인 주민은 엔벤거리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위험하다', '지저분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실제의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도 많았다. 따라서 인근 통행자들은 엔벤거리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꺼려 주변을 둘러가고 있는 등, 이웃 환경으로부터 점차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족들은 한국식당에는 절대로 안 와. 90년대부터 조금씩 늘어나더니 전부 조선족 친지가 되어 버렸어. 조선족들은 먹고 놀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 원래 그렇잖아? 여기 전부 게임방, 노래방, 음식점들이잖아? 불법 영업하는데도 많고... 그 사람들 전부 발목에 칼 하나씩 차고 다녀. 싸움도 많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해 다니지. 아예 이쪽으로 잘 오지도 않고! 원래 이 동네 살던 한국 사람들은 다 떠났지.."

"여친구가 이 동네 사는데, 엔벤거리를 가로질러 가면 빠르거든요. 근데, 위험해서 항상 여기 지나갈 때는 데려다주고 가요. 같이 다녀야 되요. 근데 실제로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가 뺑뺑거리려도 화도 안내고 그냥 속 비켜가고..."

이 지역의 담당 경찰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인해 조선족들은 행동에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선족의 공간 전유는 한국인과의 소통과 반비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프랑스인 주거지역인 서래마을과 일본인 마을인 리틀도쿄와 같은 선진국 마을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도 및 각종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등의 선호성에 반해, 상대적으로 연길(연변)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혹은 선입관이 엔벤거리리의 고립화(isolation)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이중성 혹은 혼재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중국 국적을 가졌으나, 중국동포로서 한국인이라는 이중적 신분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조국은 한국인 반면 고향은 연길(중국)이라는 인식이 인터뷰 조사 결과로 높게 나타났다.

신분의 정체성 외에도, 엔벤거리에서 통용되는 언어 또한 중국어와 한국어가 혼재되어 있으며, 간판이나 광고지 등 지면의 문자 역시 한문과 한글이 혼용되고 있다.

상업활동에서도 이중성(dualism)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의 생맥주 문화로 굳어진 '호프'와 조선족 음식인 '토끼탕'을 함께 판매하고, 전화방과 통신기기 판매점이 혼재하고 있으며, 연길 양식의 간판과 한국 대기업 상징 로고를 사용한 한국식 간판이 섞여 있는 등, 한국과 연길, 양쪽 문화 요소들의 혼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중성 혹은 혼재 양상은 한 문화의 진정성(authenticity)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으나, Ethnic Enclave의 경관적 특성을 형성하는 요인이며, 새로 이주한 국가(host country)에의 적응과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중성은 엔벤거리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사람(한족)으로서 내가 볼 때는... 여기하고 연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글쎄... 고향 같다는 느낌을 주기 보다는... 여기가 말도 그렇고, 편리하지요. 편하고, 모든게 다..."

3) 임시성

엔벤거리에서 가장 주목되는 장소적 현상은 임시성(temporariness)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소수의 조선족을 제외한 대다수의 조선족은 '한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한다는 의미에서 엔벤거리리는 외국에 이민하여 정착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Ethnic Enclave와는 다른 현상을 나타낸다.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으로서의 엔벤거리는 따라서, 일정 기간 후에는 떠나야 하는 '임시적' 혹은 '거쳐가는' 장소이다. 이러한 임시성은 국내 체류 조선족 대부분이 가족이 아닌 부부 중 한사람이 입국하여 독신이라는 상황에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왔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중국에 남겨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서래마을과 같은 Ethnic Enclave와는 달리, 단시간에 돈을 벌어서 "떠날" 것이며, 그나마도 "불법체류"가 많다는 점에서 임시성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90년대 초반에... 거서(연길) 한국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도 나온지 좀 됐지만... 지금은 큰 돈 잡아 빨리 고향에 돌아가려는 생각이요"

"지금은 중국이 더 발전하고 있는데, 애들 교육도 중국에서 시키는 게 낫고, 애들은 중국에 두고 마누라하고만 왔는데, 서로 일하는 시간이 달라 얼굴 보기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빨리 돈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들은 한국을 믿고, 정도 많이 들었는데 단속하고 차별하고.. 그래도 여긴 돈벌러 왔으니까”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과 장소에 대한 애착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신으로 이주해 온 특성과 공통적인 상황과 삶의 목표가 공동체 구성원과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더욱 긴밀해질 수도 있다.

“나는 여기 가게를 식당하고 노래방하고 4개를 가지고 있어요. 성공한 셈인데... 한국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여기로 와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서울에서 방을 어떻게 얻는지를 몰라서 물어오기도 하는데, 혼자 떨어져 사는 것보다 가리봉동에서 다른 조선족과 함께 사는 게 낫다고 해요.”

“돈벌이하려고 전국을 떠돌기도 하지만 조선족들이 한국생활을 시작하는 곳이 여기지. 마지막으로도 그렇고.”

“고향이 훨씬 낫지. 여(여기, 엔벤티거리 일대)는 집세 싸고 그저 지내는 거 불편 없으니까 그렇긴 해도 우리 조선족 사람들은 같이 몰려다니지. 그래서 여 오면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Ethnic Enclave가 이민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의 어려움으로부터 완충역할을 한다(Handlin, 1951; Kramer, 1970; Brown and Perkins, 1992; Gold, 1992)는 측면에서 엔벤티거리는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조선족 집단은 ‘이민’을 통한 이주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체류’하며, 특히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특성은 장소의 의미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함축한다.

주목할 점은, 가리봉동 한국인 주민의 경우 엔벤티거리 일대의 거주지역에서 조선족들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쓰레기 방치, 비위생적 태도 등)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반면, 조선족 방문객과 거주자 모두 엔벤티거리의 경관에 대한 특별한 바람이나 불편함은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인터뷰 조사 결과에서는 엔벤티거리의 임시성이 장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작용은 동시에 같은 크기의 영향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추후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V. 결론

서울의 외국인 주거지역 중 최대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Ethnic Enclave로서의 가리봉동 엔벤티거리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족집단지체류지로서 엔벤티거리와 그 일대 배후 주거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의 형태로 대표된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특징은 거주자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것이며, 이는 엔벤티거리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외부자의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실제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는 그들의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선족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사용 및 한자와 한글이 혼용된 엔벤티거리의 간판은 장소에 독특한 시각적 특징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족에게는 그들의 일상에서 통용되는 중국어, 한글 및 한문과 같은 ‘언어’와 ‘문자’의 표현으로, ‘편안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성원들 간의 내적 소통의 수단으로서 엔벤티거리에서의 장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시각적·물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인 Ethnic Enclave와는 달리 엔벤티거리는 조선족 경영자와 구매자로 이루어지는 내부자 중심의 조선족간의 상권을 형성하는 생계형 공간으로 나타났다. 즉, 엔벤티거리의 장소성은 물리적 건축 및 환경 요소보다 집단적 삶의 일상성을 충족시키는 상업활동의 형태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조선족에게 엔벤티거리는 여가활동과 정보교환, 중국 음식 및 식료품 구매의 장(場)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위한 행위 및 형태, 그리고 그 패턴은 엔벤티거리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엔벤티거리는 공간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인 조선족에 의해 전유(appropriation)됨과 동시에 한국인 및 주변 환경과는 격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선족의 신분과 그들의 고향에 대한 인식, 문자 및 언어, 음식문화 등에서의 문화적 이중성(dualism) 및 혼재 양상은 현재 엔벤티거리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엔벤티거리의 장소성 형성에 있어서 이민으로 이루어지거나, 신분의 상태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여타의 Ethnic Enclave와 구분되는 장소성 형성 요인의 특징으로서 장소의 임시성(temporariness)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임시성은 “불법체류”라는 조건 하에서 더욱 강화되고, 이는 다시 주거환경에 대한 무관심 등의 부정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임시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내부자간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엔벤티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들은 조선족 내부인 중심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사회·경제적 입지가 미약한 조선족의 경우 그들만의 장소 형성과 점유 양상은 서래마을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외부인들의 이용이 압도적인 서래마을에 비해 엔벤티거리는 한국인에 대해 폐쇄적이거나 언어 소통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및 한국인과의 격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장소의 게토(Ghetto)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엔벤펠리 내부 및 주변 일대의 가로구조, 공간적 형태와 같은 구체적인 '공간물리적' 특성과 앞서 도출된 장소성 형성 요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연결·분석하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향후 장소성 형성 요인의 범위를 확대·세분하여 보충되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문화적 다양성과 진정성을 수용하는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Ethnic Enclave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 장소성의 본질 및 형성 요인과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 등의 일련의 심층적 고찰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인천출입국관리소 2008년 2월말 기준 외국인 등록현황.
 주 2. 이러한 Ethnic Enclave의 용어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 및 분석의 초점을 고려하여 "소수민족집단지역"으로 설정, 진행하였음
 주 3. 이해경 등(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한국사회학 40(5): 264.
 주 4. 연구자의 서래마을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내용은 2008년 한국조경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pp. 72-75.
 주 5. Camus A.(1959) Noces suivi de l' Et'e. Paris: Editions Gallimard;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에서 재인용함

인용문헌

1. 이서진(2007) 게이남성의 장소형성: 종로구 낙원동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이은숙(2004) 장소에 대한 애착의 개념구조, 사회과학연구 제20호 별책부.
 3. 이해경, 정기선, 유명기, 김민정(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64.
 4. 인천출입국관리소 2008년 2월말 기준 외국인 등록현황.
 5. 한성미, 엄봉훈(2008) 서래마을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 내부자와 외부자의 장소성 지각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pp. 72-75.
 6. Abrahamson, M.(1996) Urban Enclaves: Identity and Place 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Press.
 7. Altman, I., and S. M. Low(1992) Place attachment, Plenum Press, New York.
 8. Brown, B. B., and D. D. Perkins(1992) Disruption in place attachment. In. I. Altman & S. M. Low(Eds) Place Attachment. New York: Plenum, pp. 279-304.

9. CamusA.(1959) Noces suivi de l' Et'e. Paris: Editions Gallimard.
 10. Feldman, R. M.(1990) Settlement-identity: psychological bonds with home places in a mobile society. Environment and Behavior 22: 183-229.
 11. Gold, S. J.(1992) Refugee Communities: A Comparative Field Study. Newbury Park, CA: Sage.
 12. Gordon, M. M.(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3. Handlin, O.(1951) The Uprooted. Boston: Little, Brown & Co.
 14. Hummon, D. M.(1989) House, home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In S. M. Low & E. Chambers(Ed.) Housing, Culture and Design: A Comparative Perspectiv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207-228.
 15. Jonassen, C. T.(1949) Cultural variables in the ecology of an ethnic group. In G. A. Theodorson, (Ed.), Studies in Human Ecology. Evanston, IL: Row, Peterson & Company. pp. 264-273.
 16. Kramer, J. R.(1970) The American Minority Community.
 17. Lyman, St. (1974) Chinese American. New York: Random House.
 18. Loo, C. (1991) Chinatown: Most Time. Hard Time. New York: Praeger.
 19. Lopata, H. Z.(1964) The function of voluntary association in an ethnic community 'Polonia'. In E. W. Burgess & D. J. Bogue(Eds) Contribution to Urban Sociolog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 Park, R. E.(1952) Human Communities. New York: Free Press.
 21. Portes, A., and R. D. Manning(1986) The immigrant enclave: Theory and empirical examples. In S. Olzak & J. Nagel(Eds)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pp. 47-68.
 22. Proshansky, H. M.(1978) The city and self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10: 147-169.
 23. Proshansky, H. M., A. K. Fabian and R. Kamino(1983)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24. Rapoport, A.(1982)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A Non Verbal Communication Approach. Beverly Hills, CA: Sage. pp. 332.
 25.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imited.
 26. Rivlin, L. G.(1982) Group membership and place meanings in an urban neighborhood. Journal of Social Issues 38(3): 75-93.
 27. Tuan, Y.-F.(1980) Rootedness versus sense of place. Landscape 24: 3-8.
 28. Twigger, Ross, C. L., and D. L. Uzzell(1996) Place and identity process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6: 205-220.
 29. Yuan, D. Y. (1963) Voluntary segregation: A study of New York Chinatown. Phylon. 24: 255-265.
 30. Zhou, M. (1992). Chinatown: The Socioeconomic Potential of an Urban Enclave.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원 고 접 수 일: 2008년 12월 1일
 심 사 일: 2008년 1월 15일(1차)
 2009년 1월 28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09년 2월 4일
 4 인 의 명 심 사 필